

봄날 사할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수비 훈련 시간에 먼저 훈련을 끝낸 외야수들이 내야진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KIA 내일부터 시범경기...1군 엔트리 치열한 경쟁

‘호랑이 군단’이 2017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오키나와에서 귀국한 선수들은 11일 하루 휴식일을 보낸 뒤, 12일 스파이크 끈을 다시 썼다. 이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나있었던 임창용, 최형우, 양현종도 KIA 선수로 복귀했다. 다만 퓨처스 캠프에서 기회를 노렸던 야수 최원준과 좌완 정동현 그리고 2017 우선 지명 선수인 우완 유승철도 챔피언스필드에서 몸을 풀었다. 성공적으로 캠프를 치른 KIA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1군 엔트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한다. KIA는 두산(14·15일)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kt(16·17일), SK(18·19일), 삼성(21·22일), NC(25·26일)와 10번의 홈경기를 치른다. 23·24일은 한화와의 대전 원정 경기로 진행된다.

시범경기를 통해 KIA의 강점으로 떠오른 ‘화력’을 엿볼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나지완의 FA 잔류 속에 ‘타격 4관왕’ 최형우와 ‘빅리거’ 베냐디나라는 새로운 자원을 더해 막강 타선을 짜게 됐다. ‘에비역 키스톤’ 김선빈·안치홍도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타선의 구슬쇠기가 이번 시범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지난 시즌 KIA의 풀지 못한 고민이었던 1번은 베냐디나의 자리로 유력하다. 빠른 발을 앞세운 베냐디나는 파워와 수싸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한 톱타자로 부각했다. 2번에는 안치홍이 유력후보다. 지난 시즌 말 제대 후 1번 타자로 역할을 했던 안치홍은 공격적인 타격 스타일을 감안, 강한 2번 타자로 더 어울린다는 평가다. 선구안이 좋은 나지완도 전면에 배치될 수도 있다. 외야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노수광, 신종길 등도 2번 후보다. 2번 구성에 따라 7번 자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클린업 트리오’는 최형우를 중심으로 짜이게 된다. ‘캡틴’ 김주찬과 ‘4번타자’ 최형우에 이어 나지완이 뒤를 받치는 클린업 트리오도 위력적이다. 이범호는 호시탐탐 6번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범호는 “출루율 좋은 타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6번 자리로 몰리어서 타점에

욕심을 내고 싶다. 무조건 100타점은 넘겠다”며 ‘해결사’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포수 이흥구는 하위타순에서 힘을 실어줄 자원이다. 김선빈은 ‘연결고리’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선빈은 “9번 타순에서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로 9번을 언급했다. 아직 KIA의 타순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리싸움이 진행 중이고, 지난 시즌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준 김주형과 서동욱이라는 활용 폭이 넓은 카드도 있다. 시범경기를 통해 꾸러질 ‘호랑이 군단’의 막강 라인업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12일 합동훈련을 한 KIA는 13일 자율훈련 일정으로 시범경기 개막에 대비한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LA 류현진 2이닝 무실점...최고 구속 146km 박병호, 시범경기 3홈런 6타점...빅리그 청신호

시범경기에서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힘찬 봄을 열어가고 있다. 철저부심한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도전자’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구단을 행복할 고민에 빠트렸고,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작년과는 달리 순조롭게 타격감을 끌어 올리는 중이다.

우선 류현진의 호투 소식이 반갑다. 류현진은 12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서 처음 선발 등판해 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2015년 어깨 수술 이후 최근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딱 1경기만 던진 류현진은 순조롭게 페이스를 끌어 올리고 있다. 부활 여부의 관건인 구속은 최고 시속 146km까지 나왔고, 변화구 제구와 경기 운영

은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다. 박병호는 약점으로 지적됐던 강속구 대처까지 보완해 빅리그 복귀에 청신호를 밝혔다. 박병호는 이날 보스턴 레드삭스전에 4번 지명타자로 나서 2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 2득점을 올렸다. 시원한 2루타로 시범경기 타율 4할(20타수 8안타)을 기록했고, 볼넷도 하나 추가했다. 전날에는 시범경기 3호 홈런을 쳤고, 6타점에 5득점을 기록 중이다. 박병호와 함께 역시 조정선수인 황재균도 장타력을 뽐냈다. 황재균은 이날 신시

봄날 부활

내티 레즈전에서 스코트 켈트먼을 상대로 솔로포를 터트렸다. 8일 다저스전 이후 2경기 만의 홈런으로 ‘일발 장타’를 입증했고, 3루 수비도 안정적이다. 타율은 0.333(18타수 6안타)이다. 작년 시범경기 타율 0.178로 최악의 성적을 냈던 김현수는 9경기 연속 선발 출전으로 단단한 입지를 보여줬고, 타율도 0.267(30타수 8안타)로 나쁘지 않다. 특히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때린 8개의 안타 모두 단타였는데, 올해는 안타 8개 중 2개가 장타(2루타)다. /연합뉴스

WBC 이스라엘 돌풍 어디까지

도쿄라운드 첫 경기서도 쿠바 놀라...본선 4연승

3승으로 서울라운드를 기분 좋게 통과한 이스라엘이 도쿄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쿠바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도쿄 2라운드 1차전에서 4-1로 이겼다. WBC 본선 4연승 행진이다. 메이저리그 124승에 빛나는 ‘전직 빅리거’ 제이슨 마르키스는 이날도 선발 등판해 5.2이닝을 4피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마르키스는 3월 6일 서울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과 WBC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는 등 이스라엘이 치른 4경기 중 3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마르키스는 이날 2회초 알프레도 데스파이그네에게 좌중월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이후 실점 위기를 넘기면서 마

운드를 든든하게 지켰다. 이스라엘 타선이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보탬했다. 이스라엘은 4회말 1사 1루에서 타진 서울라운드 최우수선수 라이언 라반웨이의 좌익수 쪽 2루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6회 1사 1,2루에서는 잭 보렌스 타인의 우전 저시타로 2-1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진 2사 1,2루에서는 블레이크 게이글렌의 우익수 쪽 2루타로 3-1까지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8회 무사 1,3루에서 게이글렌에게 스쿼즈 번트를 지시해 4-1로 앞서가며 승기를 굳혔다. 이스라엘 마무리 조시 자이드는 8회초 1사 1,2루 위기에 등판해 1.2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 총장중, KIA타이거즈기 호남 중학야구 우승

진흥중에 연장 승부치기 끝 승

광주 총장중이 ‘제11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흥중중은 지난 1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진흥중과의 대회 결승에서 연장 승부치기 끝에 9-8로 이기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예선전에서 정음 이평중과 화순중을 꺾고 준결승에 오른 흥중중은 세지중을 5-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총장중은 여세를 몰아 2010년 우승 이후 7년 만에 통산 2번째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광주, 전남·북 지역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승팀인 흥중중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

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진흥중)과 3위 2개팀(이수중·세지중)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야구용품이 각각 수여됐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도 기념품으로 야구용품이 들어갔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김경석(총장중)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주어지는 등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 김경석(총장중) ▲타격상 : 김환서(0.667·총장중) ▲우수투수상 : 조재웅(총장중) ▲최다 안타상 : 김주홍(7안타·진흥중) ▲최다 도루상 : 정선우(6개·총장중) ▲최다 타점상 : 박민서(5타점·진흥중) ▲수훈상 : 박지원(총장중) ▲감투상 : 이정재(진흥중) ▲미기상 : 김현도(진흥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항소...개막전 출전 물 건너가

피츠버그 매체 “구단, 제한선수 분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게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가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막전 출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피츠버그 지역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2일 “피츠버그 구단이 11일 날짜로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다. 보통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금지 같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여 지급도 정지된다. 신문은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8000만원)다. 보통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정규시즌 개막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면 급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이는 단지 오늘 그가 (스프링캠프인) 브래튼에 없다는 걸 반영한 것뿐”이라며 징계가 아닌 ‘질차상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강정호는 당장 미국에 건너간다고 해도 정규시즌 개막전에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비자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복귀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는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1심 판결 뒤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강정호의 항소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정호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과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면 강정호의 개막전 출전은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츠버그의 개막전은 4월 4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이다. /연합뉴스